

기질 및 성격검사-성인용(TCI-RS)의 구인타당도: 대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을 중심으로

이 속 회

황 순 택[†]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기질 및 성격검사-성인용(TCI-RS)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이 검사에서 측정하는 4가지 기질 및 3가지 성격특질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일반 대학생 753명을 대상으로 TCI-RS, Beck 우울척도, 상태-특성 불안검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울과 불안 모두 기질 차원에서는 위험회피와 정적 상관, 인내력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우울과 불안은 성격특질 차원에서는 자율성, 연대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우울과 불안의 상호상관이 높으므로 각각의 영향을 통제 후 각각을 예측하는 기질 및 성격특질 변인들을 알아본 결과, 기질 차원의 경우 자극추구와 위험회피가 우울의, 위험회피와 인내력이 상태불안의, 그리고 자극추구, 위험회피, 인내력이 특성불안의 유의한 예측요인이었다. 성격특질 차원에서는 자율성이 우울의, 그리고 자율성과 연대감이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의 유의한 예측요인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우울과 불안이 높을수록 위험회피가 높고, 자율성이 낮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TCI-RS가 기질과 성격특질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주요어 : TCI-RS, 기질, 성격특질, 우울, 불안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황순택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번지
Tel : 043-261-2187 / Fax : 043-271-1713 / E-mail : hstpsy@chungbuk.ac.kr

성격은 개인의 행동과 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구성개념이다. Cloninger는 성격(personality)이 기질(temperament)과 성격특질(character)¹⁾로 구성되었다는 심리생물학적 성격모델을 기반으로 ‘기질 및 성격 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를 개발하였다(Cloninger, Przybeck, Svrakic, & Wetzel, 1994). TCI는 정신장애를 연구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인정받으면서 기질 및 성격 특질과 축 I 장애 및 축 II 장애 관련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Cloninger, Svrakic, & Przybeck, 1993).

기질이란 다양한 정서자극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편향 또는 경향으로 유전적 속성을 지니며, 문화나 사회적 학습과는 무관하게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인 것으로 가정된다(Cloninger, Bayon, & Svrakic, 1998). 이에는 자극추구(Novelty Seeking; NS), 위험회피(Harm Avoidance; HA),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RD), 인내력(Persistence; P)의 네 가지 차원이 가정되었다.

자극추구(NS)는 새로운 자극이나 보상에 대한 탐색과 처벌을 회피하는 성향을 말하며, 행동 활성화 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와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된 기본 정서 상태는 화(anger)이다. 위험회피(HA)는 처벌이나 위험이 예상될 때 이를 회피하는 성향을 말하며, 행동 억제 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와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된 기본 정서 상태는 두려움(fear)이다. 사회적 민감성

(RD)은 지속적인 강화 없이도 친밀감 혹은 애착이라는 사회적 보상을 위해 행동을 유지하는 성향을 말한다. 즉, 따뜻한 사회적 애착에 대한 의존성을 말하며 행동 유지 체계(Behavioral Maintenance System)와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된 기본 정서 상태는 혐오/사랑(disgust/love)이다. 끝으로, 인내력(P)은 간헐적인 강화나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성취라는 보상을 위해 일정시간 동안 행동을 지속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 역시 행동 유지 체계와 관련이 있다(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Svrakic, Svrakic & Cloninger, 1996).

기질과 함께 성격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개념으로 Cloninger 등(1993)은 성격특질(character) 차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한 개인이 가진 기질, 가족환경, 생활경험이 상호작용하여 발달한 것으로, 자기와 대상과의 관계(self-object relationship)의 개인차를 말한다(Svrakic et al., 1996). 즉, 성격특질 차원은 개인이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대한 자기개념에서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동적인 정서 반응에서의 개인차를 반영하는 기질차원과 구별된다. 이러한 자기개념에 따라 자신의 경험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신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자동적 정서반응의 자각과 조절이 영향을 받게 된다. Cloninger가 제시한 성격특질 차원에는 자율성(Self-Directedness; SD), 연대감(Cooperativeness; C),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 ST)이 있다.

자율성(SD)은 개인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자율적 인간’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말하며, 자기결정력과 의지력의 두 가지 기본 개념으로 구성 된다. 연대감(C)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 사회, 인류와의 관계에서

1) Cloninger가 제작한 TCI의 한국판(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에서는 “character”를 “성격”으로 번역하였으나 “personality”와 구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personality”를 “성격”으로, “character”를 “성격특질”로 번역하였다.

자신을 ‘인류 혹은 사회의 통합적인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러한 자기개념으로부터 타인과의 동일시, 타인에 대한 수용, 자비, 양심 등이 파생된다. 자기초월(ST)은 개인이 우주 만물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우주의 통합적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러한 자기개념으로부터 우주 만물과의 일체감, 영성 및 종교적 신앙의 수용, 조건에 관계없는 평온함과 감사가 나타날 수 있다(민병배 등, 2007).

TCI를 사용하여 우울, 불안과 성격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여러 연구에서 위험에 대하여 회피하는 개인의 기질적 특성이 우울, 불안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성격특질 차원인 자율성은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Cloninger, Bayon, & Svrakic, 1998; Gruzca, Przybeck, Spiznagel, & Cloninger, 2003; Naito, Kijima, & Kitamura, 2000; Peirson, & Heuchert, 2001; Tanaka, Sakamoto, Kijima, & Kitamura, 1998; Yuh, Neiderhiser, Spotts, Pedersen, Lichtenstein, Hansson, Cederblad, Elthammer, & Reiss, 2008)와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Abrams et al., 2004; Battaglia, Przybeck, Bellodi, & Cloninger, 1996; Richter, Polak, & Eisemann, 2003)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우울과 기질 및 성격특질 간의 관계에 관한 Hansenne 등(Hansenne, Reggers, Pinto, Kjiri, Ajamier, & Anseau, 1999)의 연구에서 주요우울장애집단과 일반인집단의 기질 및 성격특질을 비교해 본 결과, 우울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기질 차원에서는 위험회피가 높았고, 성격 차원에서는 자기초월이 높고, 자율성과 연대감이 낮았다. 또한 우울집단의 우울정도가 심

각할수록 위험회피점수가 높게 나타나, 위험회피 차원이 특질적(trait) 특성 뿐 아니라 상태(state) 의존적인 특성 역시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하위 불안장애집단과 일반인집단의 기질 및 성격특질을 비교해 본 Ball, Smolin, 및 Shekhar(2002)의 연구에서는 불안장애의 여러 하위 장애 집단들 모두 통제집단에 비하여 기질차원 중 위험회피가 높았고, 성격특질 차원 중 자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불안장애집단들 가운데 우울장애와 공병인 집단, 하위 불안장애들 간 공병인 집단, 단일 불안장애집단 간의 기질 및 성격특질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우울장애와 공병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위험회피가 높고 자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우울과 불안은 공통적인 유전적 속성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위의 결과는 위험회피라는 기질이 내재화(internalizing) 장애의 유전적 취약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Jylhä & Isometsä, 2006)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우울과 불안의 수준이 높을수록 기질차원 중 위험회피가 높게 나타난 반면, 성격차원 중 자율성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울과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 상태와 함께 사고력이나 집중력이 감소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질차원 중 조심성이 많고 잘 긴장하며 겁이 많고 수동적인 면 등을 특징으로 하는 위험회피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성격특질 차원 중 문제해결이 비효율적이며 타인의 의견에 쉽게 끌려 다니는 경향이 있고 미성숙한 특징이 있는 자율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TCI는 국내에서 최근에 오현숙과 민병배

(2004)에 의해 TCI의 청소년용인 JTCI(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Schmeck, Meyenburg, & Poustka, 1995)가 표준화되었으며, 민병배 등(2007)에 의해 성인용 TCI(TCI-RS)가 표준화되었다. TCI-RS는 TCI의 개정판인 TCI-R(Cloninger, 1999)의 독일판 단축형(Goth, Cloninger, & Schmeck, 2003)을 번안하고 표준화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몇몇 연구에서 기질과 성격특질, 정서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청소년용 TCI인 JTCI를 사용하였다. 김보경과 민병배(2006)는 중학생들의 기질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성격특질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고, 기질과 성격변인을 측정하는 도구로 JTCI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우울과 가장 관련이 높은 변인은 기질 차원에서는 위험회피, 성격특질 차원에서는 자율성이, 양육행동에서는 돌봄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율성이 기질 및 양육행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기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격특질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황정미와 채규만(2007)의 연구에서도 기질과 성격특질을 측정하는 도구로 JTCI가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역시 우울과 가장 관련이 높은 변인은 기질차원에서는 위험회피, 성격특질 차원에서는 자율성으로 나타났으며, 기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격적인 성숙도를 반영하는 자율성이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JTCI를 사용한 연구들은 있으나, 성인용 TCI는 국내에서 최근에 표준화가 이루어진 만큼 TCI-RS를 활용한 연구는 아직은 찾아보기 어렵다. TCI가 여러 나라의 임상장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구인 만큼

국내에서도 연구와 임상적인 목적으로 활발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검사의 활발한 사용에 앞서 교차타당화의 측면에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질 혹은 성격특질과 불안, 우울을 중심으로 하는 부정적 정서와의 관계를 살펴 본 여러 연구에서 대체로 위험회피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율성이 낮을수록 불안, 우울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들에 비추어 우울,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TCI-RS로 측정된 위험회피 수준이 높고 자율성이 낮게 나오는지 확인함으로써 이 검사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서울, 경기, 수원, 부산시 소재 대학의 학생들 총 753명(남자 348명, 여자 40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전체 집단의 평균 연령은 21.46세(SD=2.42)였으며, 남자는 22.15세(SD=2.63), 여자는 20.71세(SD=2.01)였다.

평가도구

기질 및 성격검사-성인용

기질과 성격특질을 측정하기 위해 Cloninger의 심리생물학적 인성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독일판 TCI-R의 단축형인 TCI-RS(Goth, Cloninger, & Schmeck, 2003)의 한국판이 사용되었다. TCI-RS 한국판은 독일판 TCI-RS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Revised- Short Version: TCI-RS)를 민병배 등(2007)이 번안하고 표준화한 것이다. 이 검사는 4개의 기질차원과 3개의 성격특질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40문항으로 각 문항은 0-4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Beck 우울척도

백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는 Beck, Ward, Mendelson, Mock와 Erbaugh(1961)이 우울과 관련된 인지적, 정서적, 생리적, 동기적 영역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 4개의 서술문이 제시되어 있어 이 중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서술문 1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우울 증상의 정도에 따라 0-3점으로 채점되며, 총점의 범위는 0-63점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상태-특성불안 검사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1970)이 제작한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김정택(1978)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태불안(State Anxiety; SA)을 측정하는 20문항과 특성불안(Trait Anxiety; TA)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안 정도에 따라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점수 범위는 20점에서 80점까지 이다. 본 연구에서 상태불안의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특성불안의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자료분석

SPSS for Windows Version 12.0을 이용하여 우울, 불안과 기질 및 성격특질 차원의 상관을 산출하였다. 또한 우울과 불안의 상호상관을 배제하기 위하여 우울과 불안 각각의 영향이 통제된 상태에서 기질 및 성격특질 차원들의 우울과 불안(상태 및 특성)에 대한 설명력을 알아보았고, 이를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신뢰도

본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 TCI-RS 점수는 자극추구가 37.65, 위험회피가 39.95, 사회적 민감성이 46.57, 인내력이 44.95, 자율성이 43.78, 연대감이 54.47, 자기초월이 28.78이었다(표 1).

TCI-RS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85로 나타났다. 이는 TCI-RS 한국판 표준집단(민병배 등, 2007)과 유사한 수준으로, 표준집단 연구에서는 7개 기질 및 성격특질 차원의 내적합치도가 일반 성인집단에서는 .77-.88, 대학생 집단에서는 .83-.90 범위였다.

기질, 성격특질과 우울, 불안 간 상관

TCI-RS의 기질 및 성격특질 차원의 수준에 따라 우울과 불안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TCI-RS의 하위척도들과 우울척도(BDI), 불안척도(STAI)의 상관을 구하였다.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TCI의 기질차원에서는 우울, 불안 모두 위험회피와 정적 상관을 보인다.

표 1. TCI-RS의 남녀 평균

	남(<i>n</i> =348)	여(<i>n</i> =405)	전체(<i>n</i> =753)
	M(SD)	M(SD)	M(SD)
자극추구(NS)	38.97(10.17)	36.52(10.32)	37.65(10.32)
위험회피(HA)	37.62(12.56)	41.95(12.34)	39.95(12.62)
사회적 민감성(RD)	46.01(9.63)	47.05(10.10)	46.57(9.89)
인내력(P)	45.84(9.78)	44.18(9.74)	44.95(9.79)
자율성(SD)	44.72(10.99)	42.98(10.78)	43.78(10.91)
연대감(C)	54.80(9.33)	54.19(9.32)	54.47(9.32)
자기초월(ST)	28.41(11.72)	29.10(11.16)	28.78(11.42)

NS: Novelty Seeking, HA: Harm Avoidance, RD: Reward Dependence, P: Persistence
SD: Self-Directedness, C: Cooperativeness, ST: Self-Transcendence

표 2. 기질, 성격특질, 우울, 불안의 상관

	자극 추구 (NS)	위험 회피 (HA)	사회적 민감성 (RD)	인내력 (P)	자율성 (SD)	연대감 (C)	자기 초월 (ST)	우울 (BDI)	상태 불안 (SA)	특성 불안 (TA)
NS	-									
HA	-.12**	-								
RD	.19**	-.27**	-							
P	.21**	-.38**	.16**	-						
SD	-.11**	-.68**	.07	.53**	-					
C	-.06	-.35**	.42**	.21**	.25**	-				
ST	.32**	-.11**	.17**	.25**	.08*	.22**	-			
BDI	.09*	.54**	-.13**	-.23**	-.58**	-.21**	-.01	-		
SA	-.03	.60**	-.14**	-.32**	-.58**	-.30**	-.09**	.67**	-	
TA	.06	.69**	-.16**	-.34**	-.69**	-.31**	-.08*	.69**	.81**	-

p* < .05, *p* < .01

반면(BDI *r*=.54, *p*<.01; SA *r*=.60, *p*<.01; TA *r*=-.34, *p*<.01). TCI의 성격특질 차원에서도 우울과 불안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즉, BDI *r*=-.23, *p*<.01; SA *r*=-.32, *p*<.01; TA 우울과 불안 둘 다 자율성(BDI *r*=-.58, *p*<.01;

SA $r=-.58, p<.01$; TA $r=-.69, p<.01$), 연대감 (BDI $r=-.21, p<.01$; SA $r=-.30, p<.01$; TA $r=-.31, p<.01$)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위협이 예상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행동을 억제하는 기질과 함께 장애물에 부딪히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기질적 특성이 있고, 또한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남에게 상처받기 쉽고 비효율적이며 미성숙한 성격특성과 함께 타인에게 관대하지 않고 비판적이며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격특성이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기질, 성격특질의 하위차원과 우울, 불안 간 상관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우울, 불안과 TCI-RS 기질차원의 각 하위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보면, 자극추구에서는 우울과 NS2(충동성/심사숙고), NS3(무절제/절제), NS4(자유분방/질서정연)가 정적 상관(각각 $r=.14, p<.01$; $r=.08, p<.05$; $r=.16, p<.01$)을 보였으며, 또한, 상태불안과 NS1(탐색적 흥분/관습적 안정성) 그리고 특성불안과 NS1, NS2, NS3, NS4가 유의한 정적 또는 부적 상관(각각 $r=-.19, p<.01$; $r=-.13, p<.01$; $r=.12, p<.01$; $r=.10, p<.01$; $r=.08, p<.05$)을 보였다. 그러나 상관의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위협회피의 경우 모든 하위척도에서 우울, 상태불안, 특성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BDI $r=.27\sim.53, p<.01$; SA $r=.34\sim.57, p<.01$; TA $r=.39\sim.69, p<.01$). 사회적 민감성에서는 우울과 RD2(정서적 개방성), RD3(친밀감/거리 두기), RD4(의존/독립)가 유의한 정적 또는 부적 상관(각각 $r=-.25, p<.01$; $r=-.18, p<.01$; $r=.10, p<.01$)을 보였으며, 상태

표 3. 우울, 불안과 기질 차원의 하위척도와의 상관

	우울 (BDI)	상태불안 (SA)	특성불안 (TA)
NS1	-.06	-.19**	-.13**
NS2	.14**	.05	.12**
NS3	.08*	.05	.10**
NS4	.16**	.01	.08*
HA1	.53**	.57**	.69**
HA2	.38**	.42**	.50**
HA3	.27**	.34**	.39**
HA4	.53**	.56**	.60**
RD1	.00	-.07*	-.02
RD2	-.25**	-.29**	-.34**
RD3	-.18**	-.17**	-.21**
RD4	.10**	.16**	.16**
P1	-.34**	-.36**	-.46**
P2	-.37**	-.36**	-.36**
P3	-.06	-.14**	-.12**
P4	-.04	-.11**	-.09*

* $p < .05$, ** $p < .01$

NS1: 탐색적 흥분/ 관습적 안정성, NS2: 충동성/심사숙고, NS3: 무절제/절제, NS4: 자유분방/질서정연, HA 1: 예기불안/낙천성, HA2: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HA3: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 HA4: 쉽게 지침/활기 넘침, RD1: 정서적 감수성, RD2: 정서적 개방성, RD3: 친밀감/거리두기, RD4: 의존/독립, P1: 근면, P2: 끈기, P3: 성취에 대한 야망, P4: 완벽주의

불안과 RD1(정서적 감수성), RD2, RD3, RD4가 유의한 정적 또는 부적 상관(각각 $r=-.07, p<.05$; $r=-.29, p<.01$; $r=-.17, p<.01$; $r=.16, p<.01$)을, 그리고 특성불안과 RD2, RD3, RD4가 유의한 정적 또는 부적 상관(각각 $r=-.34,$

$p < .01$; $r = -.21$, $p < .01$; $r = .16$, $p < .01$)을 보였다. 그러나 대체로 상관의 크기가 크지 않았으며, 정서적 개방성 척도(RD2)에서는 우울, 불안과 상대적으로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BDI: $r = -.25$, $p < .01$, SA: $r = -.29$, $p < .01$, TA: $r = -.34$, $p < .01$).

끝으로 인내력에서는 우울과 P1(근면), P2(끈기)가 유의한 부적 상관(각각 $r = -.34$, $p < .01$; $r = -.37$, $p < .01$)을 보였다. 상태불안과 P1, P2, P3(성취에 대한 야망), P4(완벽주의)가 유의한 부적 상관(각각 $r = -.36$, $p < .01$; $r = -.36$, $p < .01$; $r = -.14$, $p < .01$; $r = -.11$, $p < .01$)을 보였고, 특성불안과 P1, P2, P3, P4가 유의한 부적 상관(각각 $r = -.46$, $p < .01$; $r = -.36$, $p < .01$; $r = -.12$, $p < .01$; $r = -.09$, $p < .05$)을 보였다. 우울과 불안에 대한 상관에서 P3과 P4의 상관은 크지 않았으나, 근면척도(P1)와 끈기척도(P2)와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BDI $r = -.34$ 와 $-.37$, $p < .01$; SA $r = -.36$, $p < .01$; TA $r = -.46$ 과 $-.36$, $p < .01$).

우울, 불안과 TCI-RS 성격특질 차원의 각 하위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보면(표 4), 먼저 자율성의 모든 하위차원은 우울, 불안과 뚜렷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BDI $r = -.39 \sim -.52$, $p < .01$; SA $r = -.38 \sim -.53$, $p < .01$; TA $r = -.48 \sim -.63$, $p < .01$). 연대감에서는 C1(타인수용), C2(공감/둔감), C3(이타성/이기성), C4(관대함/복수심), C5(공평/편파)가 우울과 유의한 부적 상관(각각 $r = -.24$, $p < .01$; $r = -.12$, $p < .01$; $r = -.08$, $p < .05$; $r = -.13$, $p < .01$; $r = -.11$, $p < .01$)을, 그리고 상태불안과 유의한 부적 상관(각각 $r = -.28$, $p < .01$; $r = -.22$, $p < .01$; $r = -.15$, $p < .01$; $r = -.17$, $p < .01$; $r = -.17$, $p < .01$)을 보였으며, 특성불안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각각 $r = -.32$, $p < .01$; $r = -.20$, $p < .01$; $r = -.13$, $p < .01$; $r = -.21$, $p < .01$; $r = -.16$,

표 4. 우울, 불안과 성격특질 차원의 하위척도와의 상관

	우울 (BDI)	상태불안 (SA)	특성불안 (TA)
SD1	-.47**	-.46**	-.55**
SD2	-.39**	-.38**	-.48**
SD3	-.44**	-.47**	-.54**
SD4	-.50**	-.53**	-.58**
SD5	-.52**	-.52**	-.63**
C1	-.24**	-.28**	-.32**
C2	-.12**	-.22**	-.20**
C3	-.08*	-.15**	-.13**
C4	-.13**	-.17**	-.21**
C5	-.11**	-.17**	-.16**
ST1	.12**	.01	.06
ST2	-.06	-.13**	-.13**
ST3	-.06	-.11**	-.11**

* $p < .05$, ** $p < .01$

SD1: 책임감/책임전가, SD2: 목적의식, SD3: 유능감/무능감, SD4: 자기수용/자기불만, SD5: 자기일치, C1: 타인수용, C2: 공감/둔감, C3: 이타성/이기성, C4: 관대함/복수심, C5: 공평/편파, ST1: 창조적 자기망각/자의식, ST2: 우주만물과의 일체감, ST3: 영성 수용/합리적 유물론

$p < .01$)을 보였다. 특히 타인수용 척도(C1)가 우울, 불안과 비교적 더 큰 부적 상관(BDI $r = -.24$, $p < .01$; SA $r = -.28$, $p < .01$; TA $r = -.32$, $p < .01$)을 보였다. 자기초월에서는 ST1(창조적 자기망각/자의식)이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r = .12$, $p < .01$)을 보였고, ST2(우주만물과의 일체감), ST3(영성 수용/합리적 유물론)가 상태불안, 특성불안과 유의한 부적 상관(각각 $r = -.13$, $p < .01$; $r = -.11$, $p < .01$; $r = -.13$, $p < .01$; $r = -.11$,

$p < .01$)을 보였지만, 상관의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우울과 불안을 예측하는 기질 및 성격특질

우울과 불안의 공변이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알려진 만큼 우울이나 불안의 측정치들이 순수하게 우울, 혹은 불안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우울과 불안 각각의 영향을 통제한 후, 우울과 불안을 예측하는 기질 및 성격특질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표 5에는 우울과 상태불안 각각을 통제한 후, 기질

및 성격특질 차원의 예측력을 제시하였다. 연령변인은 우울과 상태불안을 예측하지 않았으나, 성별변인은 우울($t(734)=2.73, p < .01$)과 상태불안($t(734)=3.98, p < .01$)에 모두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다. 여기서, 성별과 연령변인은 본 연구의 관심사는 아니지만 통계분석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제하였다. 기질 변인에서는 우울의 경우 자극추구($t(729)=4.99, p < .01$)와 위험회피($t(729)=6.27, p < .01$)가 모두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정적 상관을 보였다(자극추구: $pr=.13$, 위험회피: $pr=.17$). 이에 반해 상태불안의 경우 위험회피($t(729)$

표 5. 우울과 상태불안을 예측하는 변인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BDI			상태불안		
	R^2 변화량	F 변화량	pr	R^2 변화량	F 변화량	pr
인구학적 변인	.02	6.68*	-	.02	8.02**	-
성별	-	-	.10**	-	-	.15**
연령	-	-	-.06	-	-	.03
공변인 ¹⁾	.43	579.34**	.66**	.43	579.34**	.66**
기질	.05	16.16**	-	.09	34.89**	-
자극추구(NS)	-	-	.13**	-	-	-.01
위험회피(HA)	-	-	.17**	-	-	.24**
사회적민감성(RD)	-	-	-.02	-	-	.03
인내력(P)	-	-	-.00	-	-	-.08**
성격특질	.03	14.95**	-	.01	8.65**	-
자율성(SD)	-	-	-.16**	-	-	-.09**
연대감(C)	-	-	.04	-	-	-.08**
자기초월(ST)	-	-	.02	-	-	-.02

* $p < .05$, ** $p < .01$, pr =part correlation coefficients

1) 종속변인을 예측하기 위해 통제된 공변인을 제시한 것으로, BDI의 공변인은 상태불안이며, 상태불안의 공변인은 BDI 측정치임

=9.60, $p < .01$)가 정적 상관을 보이며($pr = .24$) 상태불안을 예측하였고 이와 함께 인내력($t(729) = -3.30$, $p < .01$)이 부적 상관을 보이며($pr = -.08$) 상태불안을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성격특질 변인에서는 우울의 경우 성격특질 차원의 하위척도 중 자율성만이($t(726) = -6.28$, $p < .01$) 우울과 부적 상관($pr = -.16$)을 보이며 우울을 예측하였다. 이에 반하여 상태불안의 경우에는 자율성($t(726) = -3.43$, $p < .01$) 뿐 아니라 연대감($t(726) = -3.39$, $p < .01$)도 상태불안을 예측하였고, 부적 상관을 보였다(자율성: $pr = -.09$, 연대감: $pr = -.08$).

표 6에는 우울과 특성불안 각각을 통제된 후 기질 및 성격특질 차원의 예측력을 제시하였다. 연령변인은 특성불안과 우울을 예측하지 않았으나, 성별변인은 우울($t(734) = 2.73$, $p < .01$)과 특성불안($t(734) = 2.97$, $p < .01$)에 모두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다. 기질변인에서는 우울의 경우 자극추구($t(729) = 2.71$, $p < .01$)와 위협회피($t(729) = 3.12$, $p < .01$)가 모두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정적 상관을 보였다(자극추구 $pr = .07$; 위협회피 $pr = .08$). 특성불안 또한 자극추구($t(729) = 4.00$, $p < .01$), 위협회피($t(729) = 15.56$, $p < .01$)가 정적 상관을 보이며(자극추

표 6. 우울과 특성불안을 예측하는 변인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BDI			특성불안		
	R^2 변화량	F 변화량	pr	R^2 변화량	F 변화량	pr
인구학적 변인	.02	6.68**	-	.02	5.79**	-
성별	-	-	.10**	-	-	.12**
연령	-	-	-.06	-	-	-.03
공변인 ¹⁾	.46	656.13**	.68**	.47	656.13**	.68**
기질	.01	4.04**	-	.16	80.98**	-
자극추구(NS)	-	-	.07**	-	-	.09**
위협회피(HA)	-	-	.08**	-	-	.35**
사회적민감성(RD)	-	-	-.02	-	-	.02
인내력(P)	-	-	.01	-	-	-.09**
성격특질	.02	8.95**	-	.03	17.77**	-
자율성(SD)	-	-	-.13**	-	-	-.15**
연대감(C)	-	-	.03	-	-	-.05*
자기초월(ST)	-	-	.03	-	-	-.03

* $p < .05$, ** $p < .01$, pr=part correlation coefficients

1) 종속변인을 예측하기 위해 통제된 공변인을 제시한 것으로, BDI의 공변인은 특성불안이며, 특성불안의 공변인은 BDI측정치임

구 $pr=.09$; 위협회피 $pr=.35$) 특성불안을 예측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내력($t(729)=-4.14$)이 부적 상관을 보이며($pr=-.09$) 특성불안을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성격특질 변인에서는 우울의 경우 자율성($t(726)=-4.86$, $p<.01$)만이 우울과 부적 상관($pr=-.13$)을 보이며 우울을 예측하였다. 이에 반하여 특성불안의 경우에는 자율성($t(726)=-6.73$, $p<.01$) 뿐 아니라 연대감($t(726)=-2.13$, $p<.01$)도 특성불안을 예측하였고, 부적 상관을 보였다(자율성 $pr=-.15$; 연대감 $pr=-.05$). 우울과 상태불안, 특성불안을 각각 통제된 후의 예측변인들 역시 상관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기질 차원에서는 위협회피가 정적으로, 성격특질 차원에서는 자율성이 부적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TCI-RS의 구인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TCI-RS의 구인타당도를 우울과 불안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TCI-RS와 우울, 불안척도의 상관분석 결과 기질 및 성격특질 차원의 특성이 우울과 불안에서 모두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기질차원에서는 위협회피가, 성격특질 차원에서는 자율성이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여 JTCI를 사용한 연구들(김보경과 민병배, 2006; 황정미와 채규만, 2007)과 성인용 TCI를 사용한 연구들(Ball, Smolin, & Shekhar, 2002; Brown, Svrakic, Przybeck, & Cloninger, 1992; Jylhä & Isometsä, 2006; Tanaka, Sakamoto, Kijima, & Kitamura, 1998; Yuh, et al., 2008)과 결과가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위협

회피는 4가지 하위차원, 즉, HA1(예기불안/낙천성), HA2(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HA3(낮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 HA4(쉽게 지침/활기 넘침)에서 모두 우울, 불안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처럼 위협회피가 높은 개인은 안전을 중시하고 조심성이 많아서 위협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위협에도 지나치게 걱정하여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두려워하고 과도하게 상황을 비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민병배 등, 2007). 이러한 특성이 부정적인 정서인 우울과 불안에 취약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협회피는 Cloninger가 행동억제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기질로 표현한 것인데, 행동억제는 낮은 사람이나 상황, 사건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나 행동이 억제(자제)되는 것을 말한다(Kagan, Reznick, & Snidman, 1988). 행동억제와 우울과 불안에 대한 연구들의 개관논문(Hirshfeld-Becker, Micco, Henin, Bloomfield, Biederman, & Rosenbaum, 2008)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결과에서 우울과 불안이 행동억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위협회피가 우울과 불안에 취약한 기질특성임을 알 수 있다.

기질차원인 위협회피와 더불어 성격특질 차원인 자율성 역시 모든 하위차원, 즉, SD1(책임감/책임전가), SD2(목적의식), SD3(유능감/무능감), SD4(자기수용/자기불만), SD5(자기일치)에서 우울과 불안과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율성은 자신이 '선택한' 목표와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통제, 조절, 적응시키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낮은 개인은 비효율적이고 책임감이 부족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상처 받기 쉽고 남을

원망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라 행동하기 보다는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특성이 있다(민병배 등, 2007).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효율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상황에 압도당하여 쉽게 무력해지고 좌절감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우울과 불안에 취약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회피가 높은 기질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자율성 발달을 잘 이루지 못하였을 경우,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할 위험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자율성의 발달은 우울과 불안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정미와 채규만(2007)의 연구에서 자율성이 위험회피와 우울을 매개한다는 결과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기질차원에서는 위험회피 외에 인내력의 하위차원 중 P1(근면)과 P2(끈기)에서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게으르고, 어려움에 부닥치면 쉽게 포기하거나 현실과 타협하며, 끝까지 일을 완성하려는 열의가 부족한 기질 특성 역시 우울과 불안에 취약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성격특질 차원에서도 연대감의 하위차원 중 CI(타인 수용)에서 우울과 불안에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을 보여, 나의 가치관과는 다른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사람일수록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으며 이런 특성은 우울과 불안에 취약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TCI의 기질과 성격특질 차원과 관련된 대처양식에 관한 연구(Ball, Smolin, & Shekhar, 2002) 결과를 보면, 먼저 기질차원 중 위험회피가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경우 자기주장을 펼치기 보다는 문제를 회피하는 특

질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인내력이 높을 경우 문제를 회피하기 보다는 주관이 뚜렷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특징이 있다. 성격특질 차원 중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문제에 신중하지만 자신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연대감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지지나 사회적 참여와 같은 좀 더 친사회적인 대처방법을 구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위험회피가 높고, 인내력, 자율성, 연대감이 낮을 경우 상당히 미숙하고 수동적인 대처양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특징은 전반적인 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빚을 수 있고 우울과 불안에 취약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회귀분석을 통해 우울과 불안을 예언하는 기질 및 성격특질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울과 불안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우울과 불안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그 결과 우울은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각각 통제하였을 경우 같은 특징을 보였다. 기질차원에서는 자극추구와 위험회피가, 그리고 성격특질 차원에서는 자율성이 우울을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을 통제하였을 경우, 상태불안은 기질차원 중 위험회피, 인내력이 그리고 성격특질 차원 중 자율성과 함께 연대감이 예언변인이었다. 특성불안은 기질차원 중 위험회피, 인내력에 더불어 자극추구가 예언변인이었으며 성격특질 차원은 자율성과 연대감이 예언변인이었다. 우울에 비하여 불안의 경우 기질차원 중 인내력이 그리고 성격특질 차원 중 연대감이 유의하게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연구(Jiang, Sato, Takedomi, Ozaki, & Yamada, 2003; Jylhä & Isometsä, 2006)를 제외하면 선행 연구들에서는 불안 뿐 아니라 우울역시 연대감과 부적인 관계를 보여 우울이 높을수록 연

대감이 낮아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우울과 불안에서 서로의 영향력을 배제하지 않은 상태로 기질과 성격특질을 살펴본 것이며, 본 연구와 같이 우울과 불안을 상호영향력을 통제한 연구(Tanaka et al., 1998)에서는 연대감이 우울은 예측하지 않았으나 불안의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낮은 연대감은 높은 위험회피, 낮은 자율성과 더불어 정신병리에 취약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연대감이 불안의 예언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불안이 우울에 비하여 다른 정신병리에도 취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을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으로 구분하여 보았는데, 회귀분석에서 특성불안이 우울과 함께 자극추구로 유의미하게 설명되어 상태불안보다는 특성불안이 우울과 좀 더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자극추구와 불안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으며 자극추구와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 역시 일관되지 않는데, 이는 국내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보경과 민병배, 2006)에서는 높은 자극추구 성향과 우울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황정미와 채규만, 2007)에서는 자극추구 성향과 우울이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자극추구 성향은 개인을 우울한 상태로 이끄는 잠재적인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Grucza, Przybeck, Spiznagel, & Cloninger, 2003), 우울증 환자에게서 자살과 충동성이 관련이 있는 것과 같이 자극추구 역시 충동성을 하위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자극추구가 우울과 일부 측면에서는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중심으로 TCI-RS의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질 및 성격특질과 우울, 불안 간의 상관을 보았다. 그 결과 우울과 불안은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여, 높은 위험회피와 낮은 자율성이 공통되게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에 비하여 불안은 낮은 인내력, 연대감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TCI-RS이 기질과 성격특질 차원을 타당하게 특정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대상으로 TCI-RS의 구인타당도를 다루었는데, 이 검사가 앞으로 심리적 특성과 정신장애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폭넓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대상으로 한 타당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보경, 민병배 (2006).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기질 및 성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 221-236.
- 김정택 (1978). 불안특성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기질 및 성격검사 매뉴얼. 서울: 마음사랑
- 오현숙, 민병배 (2004). 기질 및 성격검사. 서울: 마음사랑.
- 이영호, 송중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황정미, 채규만 (2007). 기질과 성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심

- 리학회지: 건강, 12, 969-982.
- Abrams, K. Y., Yune, S. K., Kim, S. J., Jeon, H. J., Han, S. J., Hwang, J., Sung, Y. H., Lee, K. J., & Lyoo, I. K. (2004). Trait and state aspects of harm avoidance and its implication for treatment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dysthymic disorder, and depressive personality disorder.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58, 240-248.
- Allgulander, C., Cloninger, C. R., Przybeck, T. R., & Brandt, L. (1998). Changes on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after paroxetine treatment in volunteers with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Psychopharmacology bulletin*, 34, 165-166.
- Ball, S., Smolin, J., & Shekhar, A. (2002). A psychobiological approach to personality: examination within anxious outpatient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36, 97-103.
- Battaglia, M., Przybeck, T. R., Bellodi, L., & Cloninger, C. R. (1996). Temperament dimensions explain the comorbidity of psychiatric disorders. *Comprehensive Psychiatry*, 37, 292-298.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61-571.
- Brown, S. L., Svrakic, D. M., Przybeck, T. R., & Cloninger, C. R. (1992). The relationship of personality to mood and anxiety states: a 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26, 197-211.
- Cloninger, C. R. (1999).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Revised*. St Louis, MO: Center for Psychobiology of Personality, Washington University.
- Cloninger, C. R., Bayon, C., & Svrakic, D. M. (1998). Measurement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in mood disorders: a model of fundamental states a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51, 21-32.
- Cloninger, C. R., Przybeck, T. R., Svrakic, D. M., & Wetzel, R. D. (1994).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TCI): A Guide to its Development and Use*. St. Louis, Missouri: Center for psychobiology of personality.
- Cloninger, C. R., Svrakic, D. M., & Przybeck, T. R. (1993). A 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 975-990.
- Goth, K., Cloninger, C. R., & Schmeck, K. (2003). *Das Temperament und Charakter Inventar Kurzversion fur Erwachsene - TCI R Kurz*. Klinik fur Psychiatrie und Psychotherapie des Kindes und Jugendalters der der J. W. Goethe - Universitat Frankfurt.
- Gruza, R. A., Przybeck, T. R., Spitznagel, E. L., & Cloninger, C. R. (2003). Personality and depressive symptoms: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4, 123-130.
- Hansenne, M., Reggers, J., Pinto, E., Kjiri, K., Ajamier, A., & Ansseau, M. (1999).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and depression.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33, 31-36.
- Hirshfeld-Becker, D. R., Micco, J., Henin, A., Bloomfield, A., Biederman, J., & Rosenbaum, J. (2008). *Behavioral inhibition, Depression and*

- Anxiety*, 25, 357-367.
- Jiang, N., Sato, T., Takedomi, Y., Ozaki, I., & Yamada, S. (2003). Correlations between trait anxiety, personality and fatigue study based on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5, 493-500.
- Jylhä, P., & Isometsä, E. (2006). Temperament, character and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in the general population. *European Psychiatry*, 21, 389-395.
-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 (1988). Biological bases of childhood shyness, *Science*, 240, 167-171.
- Lyoo, I. K., Yoon, T., Kang, D. H., & Kwon, J. S. (2003). Patterns of changes in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scales in subject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following a 4-month treatment.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7, 298-304.
- Naito, M., Kijima, N., & Kitamura, T. (2000).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as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Japanes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 1579-1585.
- Peirson, A. R., & Heuchert, J. W.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mood: comparison of the BDI and the TCI.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391-399.
- Richter, J., Polak, T., & Eisemann, M. (2003). Depressive mood and personality in terms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mong the normal population and depressive inpati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917-927.
- Schmeck, K., Meyenburg, B., & Poustk, F. (1995). Persönlichkeitsfragebogen für Jugendliche-JTCI. Frankfurt: J. W. Goethe-Universität, Klinik für Psychiatrie und Psychotherapie des Kindes-und JugendaHers.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vrakic, N. M., Svrakic, D. M., & Cloninger, C. R. (1996). A general quantitative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Fundamentals of a self-organizing psychobiological complex.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 247-272.
- Tanaka, E., Sakamoto, S., Kijima, N., & Kitamura, T. (1998). Different Personalities Between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4, 1043-1051.
- Yuh, J., Neiderhiser, J. M., Spotts, E. L., Pedersen, N. L., Lichtenstein, P., Hansson, K., Cederblad, M., Elthammer, O., & Reiss, D. (2008). The role of temperament and social support in depressive symptoms: A twin study of mid-aged wome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06, 99-105.
- 원고접수일 : 2008. 11. 15.
1차 수정원고접수일 : 2009. 1. 5.
2차 수정원고접수일 : 2009. 2. 16.
게재결정일 : 2009. 3. 15.

Construct Validity of the TCI-RS(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Revised-Short Version): Comparing Temperament and Character with Depression and Anxiety in Korean Undergraduates

Suk Hi Lee

Soon Taeg Hw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o test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TCI-RS, we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TCI-RS as a measure of temperaments and characters,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as a measure of depression, and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 as a measure of anxiety. On the temperament dimensions, the BDI and STAI scores were correlated positively with Harm Avoidance and negatively with Persistence. On the character dimensions, the BDI and STAI scores were correlated negatively with Self-Directedness, and Cooperativeness. After controlling the STAI score, the BDI score was predicted by Novelty Seeking, Harm Avoidance, and Self-Directedness. After controlling the BDI score, the STAI (state) score was predicted by Harm Avoidance, Persistence, Self-Directedness, and Cooperativeness, and STAI (trait) score was predicted by Novelty Seeking, Harm Avoidance, Persistence, Self-Directedness, and Cooperativeness.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and verified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TCI-RS.

Key words : TCI-RS, temperament, character, depression, anxiety